

【 해외금융뉴스: 일본 】

토쿄해상HD, 3년내 CO₂ 배출 제로화

□ 일본 최대의 손해보험기업인 토쿄해상홀딩스(東京海上HD)는 2011년 말까지 전세계 지점에서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제로화 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함.

- 지점에서 전력, 가스 등의 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고, 정부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구입하는 등, 3년내 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량을 제로화하기로 함.
- 토쿄해상홀딩스 산하 토쿄해상니치도화재보험(東京海上日動)은 이미 2008년 12월에 약 6만 5천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일본 금융기관으로는 최초로 '카본 뉴트럴'(carbon neutral: 배출량 실질 제로)을 공식 인증받은 바 있음.
- 토쿄해상홀딩스는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 변화가 자연재해의 발생 리스크를 높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불을 상승시킨다고 보고 회사 차원에서 환경보호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 분석됨.

□ 토쿄해상홀딩스는 세계 36개국과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룹 내 전체 지점 및 현지 법인까지 카본 뉴트럴 운동을 확대하여 명실공히 글로벌 친환경 보험회사로 발돋움 하겠다는 전략임.

- 토쿄해상홀딩스는 전사적으로 이미 1999년부터 동남아시아나 남태평양 피지섬 등에 조림사업을 하는 방법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노력을 하고 있으며, 풍력 발전 등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그린전력'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음.
-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2008년에 영국계 보험회사 킬른(Kiln)과 미국의 중견 손해 보험회사인 필라델피아(Philadelphia)를 인수하며 해외사업 진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토쿄해상홀딩스가 보험사업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노력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하여 글로벌 친환경 보험기업으로서 존재감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음.
- 토쿄해상홀딩스 외에도 일본고아손해보험(日本興亜損害保険)과 미츠이스미토모(三井住友)해상화재보험 등의 대형 손해보험사들 역시 이산화탄소 배출 거래제도에 참여하거나 카본 뉴트럴을 목표로 환경오염이 덜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 친환경 경영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상황임.

(FujiSankei Business i 01/01)